



노안(老眼)교정술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

돋보기 대신 '카메라 인레이'로 젊음 찾자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 하모(광주시 남구 노대동)씨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언제부터 인가 휴대폰 문자 보기가 불편해지면서 명함마저 제대로 읽기 힘들어지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부동산 계약서 쓸 때마다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아직 20년은 더 일할 생각이고, 요즘엔 100세까지도 산다는 데 앞으로 50년을 돋보기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한다.

노안(老眼)은 눈이 나이 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퇴화된다. 수정체는 우리 눈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수정체 균육이 이러한 조절력이 약해지게 되고,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된다. 평생 잘 보이던 글씨가 안보이고, 오히려 멀리 두고 봐야 잘 보인다거나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경우 노안이 시작된 것으로 봄아한다.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술이 시도되고 있다. 퇴화된 수정체 대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시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해 라식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노안라식 등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 등장한 시술이 카메라 인레이(Kamra Inlay)다.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됐고,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 시술 중 안전성과 그 효과가 확보된 시술로 인정받고 있다.

호남 최초로 '카메라 인레이'를 도입, 노안환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을 통해 카메라 인레이 노안교정술에 대해 알아본다.

◇ 카메라 인레이란?
카메라의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한다. 조리개를 조이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면서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초점 맞는 영역이 넓어진다. 카메라 인레이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주위의 빛은 차단하고, 중심부의 구멍을 통해 초점을 정확히 맞히도록 하는 것이다. 덕분에 먼 거리는 물론이고, 가까운 거리나 중간 거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양쪽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원장이 일반인에 비해 노안이 빨리 찾아온 여성 직장인에게 카메라 인레이 시술을 하고 있다.

한쪽 눈만 시술 10분 소요… 50대 효과 높아

각막수술 경험 있거나 약시 경우 시술 안돼

눈 중 한쪽 눈에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노안을 교정하는 효과가 탁월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에 절개 플랩을 만들고, 그 안에 도넛 형태의 카메라 인레이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 라식 시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시력교정이 가능하며, 기존 라식 수술을 받은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후 불편함을 느끼며 간단히 제거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구질환과 관련된 검사 및 수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장점이다.

- 노안이 찾아 오면 누구나 시술받을 수 있는지?
▲ 굴절 수술에 영향을 주는 안구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라식이나 시력교정시술을 제외한 각막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황반변성, 사시 및 악시의 경우는 시술을 권장하

지 않는다.

-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40대 이상의 노인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시력의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시술이 가능하다. 근시와 난시가 심하지 않고, 노안의 불편을 느끼는 경우 권장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아직 사회활동을 원활히 해야 하지만 노안으로 생활의 제약을 받는 50대의 경우 효과와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카메라 인레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 전체 직경 3.8mm의 원형 디스크로 그 중심부에 직경 1.6mm의 조리개가 있다. 표면은 8400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어 각막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시술시 거의 티가 나지 않아 미용적인 문제도 없고 이를 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 한쪽 눈에만 시술하기 때문에 정상시력을 갖은 경우 10분 정도면 시술을 완료할 수 있고, 라식 수술을 함

께 할 경우 15~20분 정도 소요된다.

- 카메라 인레이의 효과는 영구적인가?

▲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핀홀(pin-hole) 효과를 통해 시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노안의 진행 정도에 상관없이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 시술 후 얼마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나?

▲ 돋보기와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제일 큰 혜택이다. 또한 신문을 읽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악병에 붙은 리밸을 읽는 등 그동안 노안으로 겪어 왔던 대다수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라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근시나 난시 등으로 겪었던 불편함까지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노안은 더 이상 선진국형 안질환으로만 볼 수 있게 됐다. 다행히도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법이 소개돼 있어 눈의 특성에 따라 시력교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카메라 인레이는 노안을 100% 가깝게 교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로, 노안 교정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병상 응급병동

식약청, 독초·식용나물 구별법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잘못 알고 먹을 경우 독을 일으키는 애생식물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박(독초)은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잎맥이 많고 주름이 뚜렷한 반면, 생김새가 유사한 산마늘은 마늘 냄새가 강하며 하나의 줄기에 2~3장의 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

산나물로 잘못 알기 쉬운 대표적인 독초는 여로, 동의나물 등이 있으며, 독초와 식용 나물 등과의 구별법은 다음과 같다.

여로(독초)는 봄나물인 원주리와 유사하나, 여로 잎은 털이 많고 잎맥이 나란하며 깊은 주름이 있어 털과 주름이 없는 원주리와 구별된다. 동의나물(독초)의 경우 일

이 두껍고 표면에 광택이 있는 반면, 식용 곱취는 잎이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다.

부박(독초)은 여로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잎맥이 많고 주름이 뚜렷한 반면, 생김새가 유사한 산마늘은 마늘 냄새가 강하며 하나의 줄기에 2~3장의 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

지리강월(개당귀, 독초)은 잎이 각각 독립돼 있고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의 색상이 붉은 반면, 참당귀의 잎은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불어 있고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의 색상이 흰 것이다.

삿갓나물(독초)은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8장 둘려나는 특징이 있어, 잎이 2열로 깊게 갈라진 산나물과

차이가 있다. 철쭉(독초)은 식용 꽂인 진달래와 흡사한데 진달래 개화 시기는 초봄이며, 철쭉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늦게 피는 특징이 있고, 또한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 꽃이 피거나 꽃과 잎이 함께 나지만, 진달래는 꽃이 앞보다 먼저 핀다.

식약처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애생식물류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반드시 음리를 사용해 채취방법을 확인·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식물을 채취한 후 복통, 구토, 설사,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처치를 위해 우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하고 토하게 한 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 있는 독초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개소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민영돈)이 최근 응급환자를 단기간 수용해서 진료하는 응급병동(22병동)을 개소했다.

응급병동은 외상집중치료실 10개 병상과 일반 다인실 10개 병상 등 총 20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환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에게 적합한 심신 안정을 위해 최대한 쾌적하고 독립된 공간을 마련했으며, 응급실을 찾은 외상환자는 6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결정된다.

조선대병원 응급병동 관계자는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이 줄어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보호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병간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소아환자에 선물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과장 양은석)는 지난 3일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소아환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전남대치과병원 구례 장애인복지관 찾아 진료봉사

전남대치과병원(원장 김재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동진료팀은 최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47명에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

치과의사 4명과 치과위생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은 장애인센터 겸진 차량을 이용, 지난 2010년 11월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센터 진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 차례 장애인기관과 치과시설이 없는 곳을 찾았아 약 700여명의 장애인 및 일반인들에게 진진을 실시했다.

김재형 치과병원장은 "그동안 광주 지역 장애인 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치과진료봉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치과진료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 지역 장애인을 위해 꾸준히 이동 봉사를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장애인 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치과진료봉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치과진료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 지역 장애인을 위해 꾸준히 이동 봉사를하겠다"고 말했다.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전대문 1분 룸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기6억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룸 14개(상가1개)월수익 500 매기6억2천

★전대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기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보5천 융 2억5)

★전대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기8억4천(보5천 융 2억5천)

★상촌동 신축원투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기5억9천

★상촌동 원투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기6억9천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접 820㎡ 매기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기3억6천(보3천 융1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3억3천(보3천 융10만)

독서실 금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엘 APT후문 2층 91㎡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비/액있음

상담 문의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주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옆)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증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 광산구 산정동

• 면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목 : 접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기관)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기관은 상당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994.co.kr

부동산 성공